

서포인의 ‘좌측담장’



우승 뒤풀이

내가 다니는 회사의 사장은 배이스의 오랜 팬이다. 한창 시즌 중에 북도에서 마주치면 늘 야구 소식을 묻고는 했다. 올해는 요즘 기아 잘 나가니 좋겠어요, 라는 인사가 많았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올해가 어떡해요, 라는 걱정이 대부분이었다. 야구가 대체 뭐라고 안부까지 대체해 버린 것인지... 어쨌거나 내심 작년보다는 올해의 인사가 나누기에 더 편했던 것은 사실이었다.

그랬던 그에게서 한국시리즈 5차전이 열린던 날 저녁에 문자가 몇 통 왔다. 퇴근 후의 문자였지만, 마치 친한 선배의 그것처럼 심드렁한 몇 마디였다. “축하해요.” 그했다. 그는 그 시간 잠실구장에 있었고, 나는 스마트폰으로 잠실구장의 경기 중계를 보고 있었던 것이다. 직관과 통계, 그것도 두 박자 느린 스마트폰 통계가 만들어 낸 시차 덕분에, 정작 우승 사실은 사장의 문자가 먼저 알려주었다. 문자를 받고 몇 초 후, 두산의 마지막 공격은 김민식의 미트 속에서 끝나고 있었다. 타 이거즈가 11번째 우승을 차지한 것이다.

2009년 한국시리즈 7차전, 나지완의 끝내기 홈런을 제외하고는 한국시리즈의 마지막은 늘 수비에 성공하는 장면이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앞서 말한 ‘끝내기’ 타점이 아니고는 야구는 ‘막는 것’으로 대미를 장식하기 마련이다. 2017년을 포함한 11번이나 우승을 차지한 타이거즈 또한 우승의 확정은 늘 9회말(혹은 9

회초) 수비였다. 어느 야수가 공을 잡아 어떤 방식으로 아웃을 시키든, 카메라는 일단 투수를 비춘다. 투수를 중심으로 한 마운드에 선수들이 뛰어나와 환호성을 지르고, 눈물을 흘리고, 행가래를 친다. 강력한 구위의 직구로 삼진을 잡고, 그 공을 아직 미트에 쥐고 있는 포수에 달려가 안기는 투수. 그 투수를 반씩 안아 든 포수. 해태 타이거즈의 전성기 시절, 광주의 야구팬이라면 장채근과 선동열의 포옹을 여태 기억할 것이다.

선동열도 없고, 이종범도 한때 없었고, ‘여차저차’해서 더 이상 강팀이 아니게 된 타이거즈에 다음 우승은 참 힘겹게도 찾아왔다. 앞선 우승들이 어쩌면 일상처럼 자연스러운 것이었다면 최근의 우승은 꿈처럼 아득하게 혹은 환상적으로 다가온다. 2009년의 끝 장면은 야구 만화라 불러도 전혀 손색이 없을 것이다. 2009년은 두말할 것 없이 잠실구장 외야 상단에 꽃히는 홈런이 백미였다. 한국시리즈 7차전 끝내기 홈런은 전무후무한 기록이고, 앞으로도 다시 생기긴 쉽진 않을 것이다. 일단 7차전까지 시리즈가 흘러가야 하고, 그 7차전의 9회말까지 동점 상황이 유지되어야 하며,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홈런을 쳐 내야 하고... 여러 확률을 따질수록 나지완은 천운을 타고난 사나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다. 최근 결혼하여 가정까지 꾸렸다고 하니, 그 운이 타이거즈와 영원히 함께하기를.

2009년의 주인공이 나지완이었다면 올해의 주인공은 단연 양현종이다. 지금이야 결과가 다 나왔으니 편하게 말할 수 있지만, 1차전을 베어스가 이기고 눈앞이 캄캄했다. 2차전 상대 선발은 타이거즈에 강한 장원준이었으니, 양현종이 빠졌다면 홈에서 2판을 내리 지고 서울에 올라갈 판이었다.

알다시피 양현종은 완봉승을 거둔다. 앞서 나지완의 경우까지는 아니겠지만 한국시리즈에서의 완봉도 흔한 기록은 아니다. 그래도 그건 그렇다 치자, 2017년 프로야구의 마지막 경기가 된 5차전, 9회말 마지막 아웃카운트까지의 과정은 어떤 작가가 드라마나 영화로 썼으면 개연성 없다는 편찬을 들을 만한 스토리였다. 7:0에서 7:6이 되고, 수비 실책으로 1사 만루가 되어 버린 상황. 마운드에는 2차전 완봉으로 시리즈 전체의 기세를 바꾼 에이스가 있다. 점수가 날 수 있는 수많은 변수들을 뒤로하고, 양현종은 유격수 뜬공, 포수 파울플라이로 두 타자를 요리한다. 그렇게 우승.

타이거즈의 팬이라면 경기장에서나 라이브 중계로 함께했을 것이고, 재방송 또한 무수하게 다시 보았을 이야기를 왜 다시 풀어놓느냐고 묻는다면, 그저 좋아서 하고 또 하는 우승 뒤풀이라고 답하겠다. 며칠 전에도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우리는 야구의 몇 장면을 다시 반추하고 수다로 부려 내면서 스트레스를 풀었을

것이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는 뜨거운 스포츠 뉴스들 들어다보면서, 우승 팀으로서의 여유를 만끽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선수들의 인터뷰처럼 우승의 기쁨이 언제 다시 올지는 누구도 모르는 일이고, 이렇게 우승 후에 맞이하는 겨울이 내년에도 다시 올 것이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 타이거즈 팬들은 최소한 올겨울까지는 뒤풀이를 즐길 자격이 있는 것이다. 매일 일회일비하느라 속을 태웠던 팬들에게 이보다 더한 축복과 보상이 어디 있었는가. 기아가 우승을 확정한 그날 밤, 나는 고민 끝에 사장의 문자에 답장을 보냈다.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는 함께 야구장에 가지지요.” 거짓말은 아니었다. 어쨌든 우승 팀의 팬으로서, 야구는 언제 어떻게 보아도 재미있는 것 같은 호기가 생긴 것 같다.

그러나 내년 일을 올해 우리가 어떻게 알겠는가? 내년 어느 날, 잠실구장 한구석, 축상을 한 채 보스 옆에 앉아 패배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팬들이여, 조금 더 뒤풀이를 즐기라. 정작 즐기고 싶을 때 갑작스레 젊은 선수가 SNS에 사고를 친다든지, 믿었던 프랜차이즈 스타가 이적을 한다든지, 팀에 충성을 다하던 노장 선수가 방출된다든지... 팬들을 식겁하게 하는 일이 이 판에서는 얼마든지 일어나니까, 그저 지금의 뒤풀이를 즐길 뿐이다. <시인>

의료칼럼



노 하 영
빛고을전남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수족구병은 주로 어린 0~6세 아이들의 손, 발, 목과 입안 등에 붉은 수포성 발진과 궤양이 생기는 질환이다. 장바이라스의 일종인 콕사키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와 생기게 되며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호전된다. 하지만 간간히 전혀 막지 못해 탈수가 생기거나, 뇌수막염, 뇌염과 같은 신경계 합병증, 심근염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수족구병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바이러스는 콕사키바이러스 A16형이고, 그 외에 콕사키바이러스 A5형, A7형, A9형, A10형, B2형, B5형 등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특히 엔테로바이러스 71형에 의한 수족구병은 뇌수막염, 뇌염 등의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여러

수족구병의 증상과 치료·예방법

종류의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한번 걸렸다고, 면역력이 생겨 다시 안 걸리는 것은 아니다.

바이러스가 병을 일으키는 것은 바이러스가 포함된 있는 환자의 변이 손이나 입상의 생활 도구(환자가 만지는 물건 등)에 묻어 입으로 들어오거나, 환자의 호흡기 분비물이나 침이 입으로 들어오는 경우다. 입이나 피부 물집의 진물과 직접 접촉해 시작되기도 한다.

또 장바이라스는 주변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존재하는 물을 마셨거나 수영장에서도 가끔 감염될 수 있다. 특히 보육시설, 놀이터 등 소아기가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감염되기도 한다.

감염된 바이러스는 목구멍이나 장의 점막 아래 조직에서 증식을 하는데, 증식된 바이러스는 증상이 나타나기 이전부터 대변이나 상부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 분비된다.

따라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않고, 손씻기나 바이러스가 묻었을 가능성이 있는 생활 도구를 청결하게 해 바이러스의 숫자를 줄이는 것이 수족구병을 예방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일반적으로 감염된 지 3~7일이 지나

면 증상이 나타나며, 처음 2~3일 동안 증상이 심해지는데 열이 발생하고 아기가 잘 먹지 못하다가 3~4일 지나면 호전되기 시작해 대개 7~10일 내에 저절로 없어진다.

열이 나기 시작한 1~2일 후 주로 혀, 잇몸, 뺨의 안쪽, 입천장 등에 통증성 피부 병변이 나타나는데 작고 붉은 반점으로 시작해 수포(물집)가 되고 종종 궤양으로 발전한다.

또한 손과 발에 수포성 발진이 나타나게 되는데 대부분 통증이나 가려움증 등 다른 증상은 없다. 시간이 경과하면서 수포는 수일 만에 흡수되며 흉터를 남기지 는 않지만 손, 발의 병변이 심한 경우 드물게 손가락이나 발가락 끝이 벗겨지거나 손, 발톱이 탈락하는 경우도 있다.

간혹 무릎이나 엉덩이에 발진이 생기기도 한다. 발열은 보통 미열이나 일부에서는 38도 전후의 열이 이를 정도 지속하기도 하며, 만약 열이 심하면서 머리가 아프고 토하거나 목이 뻣뻣해지는 경우는 뇌수막염의 합병증을 의심할 수 있다.

또 아기가 토하고 배가 아프면서 심장이 빨리 뛰거나 땀을 많이 흘릴 때는 심장에 합병증이 생긴 경우일 수도 있으므로 바로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수족구병은 나타나는 증상 및 증세가 매우 특이해 대부분은 검사 없이 임상적으로 진단된다.

그러나 증상이나 증세가 심하지 않아 임상적으로 진단이 어려워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한 경우나, 수족구병이 심한 환자의 경우 검사실 진단이 필요하게 되는 데 혈청학적 검사를 이용하거나, 인두 분비물, 대변, 뇌척수액 등에서 원인 바이러스를 배양해 검출할 수 있다.

수족구병에 걸려 열이 많이 나는 경우 열성경련을 주의하고 입이 아파 잘 먹지 못하는 경우 아기가 탈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아이가 입안이 아파 잘못 먹는 경우 탈수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부드럽고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을 주는 것이 좋고, 따뜻한 음식보다는 찬 음식을 더 잘 먹을 수 있다. 잘 먹지 못하고 8시간 이상 소변을 보지 않거나, 열이 심하면서 머리카락이 빠지고 토하는 등 뇌수막염이나 심근염이 의심되는 경우 바로 소아과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아기가 열만 좀 떨어지고 먹을 수만 있으면 그냥 뒤도 별 말 없이 일주일 정도 지나면 회복된다.

기 고



김 태 종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연구실장

겨울을 느끼게 하는 찬바람이 불던 지난 22일, 무안 남악신도시에 있는 전남경찰청에서 뜻깊은 행사가 펼쳐졌다. ‘2017년 올해의 경찰 영웅 고(故) 안병하 경무관 추모 흉상 제막식’이다.

그는 1979년 2월 전남도 경찰국장으로 부임하여 5·18의 격랑 속에서 80년 5월 26일 직위 해제를 당하고 병마에 시달리다 88년 10월 순직하신 분이다.

순직 직전 광주일보가 발행하는 월간

안병하 국장을 아시나요

저 ‘예향’ 9월호에 최초의 인터뷰가 실렸다. 대담자는 당시 광주일보 나익갑 기자, 현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이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 당시 공수부대가 너무 가혹하게 진압했어요. 그래서 우리 작전과장이 공수단 장교에게 항의하지 않았어요? ‘그럴 수가 있느냐’고 따지다가 젊은 장교한테 발길질을 당하고 나중에 문책까지 당해 그만뒀어요.” 5·18 당시 경찰 간부들이 “시민 여러분 빨리 집으로 돌아가시오. 군인들한테 잡히면 죽소!” 울면서 하소연했다는 시민들의 증언이 확인되는 순간이다.

그러나 시민들은 돌아가지 않았다. 5·18은 지금은 국가에 의해 ‘민주화운동’으로 명명되고 있다. 민주주의를 지킨 거룩한 운동이라는 의미이다. 5·18은 정치적으로는 민주화운동일지 모르나 당시 광주 시민들에게는 생존 투쟁이었다. 신군부는 인간의 본능을 짓밟았고, 광주 시민

들은 ‘생존’을 위해 싸웠다. 경찰들도 이런 정황을 알고 있었다. 경찰이야말로 야만의 현장을 지켜본 생생한 목격자이다.

안병하, 그는 어떤 사람이었나? 6·25 전쟁에 참전하여 화랑무공훈장을 받은 육사 8기 군 출신이다. 당연히 안장·질서·안보로 귀결되는 보수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일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는 ‘합리와 상식’이라는 인간 보편의 품성이 있었다. 안병하 국장은 ‘5·18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자기네들 희생물이었던 얘기입니다. 자기네들 정권 잡기 위해서 광주사태 만들어 놓고 책임을 나에게 맡겨 버린 것 아닙니까.” 자기네들은 과연 누구인가?

전두환 회고록에는 안병하 당시 도경찰장이 근무지를 이탈하고 직무를 유기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그는 신군부의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시민을 보호

하는 데 최선을 다한 죄로 80년 5월 26일 직위 해제되어 보안대로 끌려갔다. 그런 그가 2003년 4월, 광주 민주유공자가 되고 2017년 올해의 경찰 영웅으로 선정되었다. 5·18에 대한 신군부의 왜곡 하나가 명백히 밝혀진 것이다.

흉상 제막식에서 그의 아드님이 말한 것처럼 오늘은 안병하 국장이 흉상으로 예전 직장에 복귀한 슬픔과 기쁨이 교차하는 날이다. 신군부는 그들을 강제로 쫓아냈지만 역사는 그를 되살려냈고, 국민은 그를 기억하고 기념할 것이다. 그의 흉상에는 다음과 같이 써여져 있다. “당신은 경찰 정신을 지켜낸 인권 경찰의 표상입니다.”

어제 속에 내일이 있다. 역사에서 정의를 배워야 한다. 역사의 법정은 더디게 진행되지만 현실의 법정보다 냉철하다. 마치 세파에 무너진 영혼을 일깨우는 칼바람처럼....

社 說

지하철 2호선, 공공 중심 교통 혁신 계기로

광주는 승용차 도시다. 도시철도와 버스 등 대중교통이 중심을 이루는 선진국 대도시와 달리 승용차의 비중이 날로 커지고 수송 분담률도 상승하는 후진적 구조가 가속화하고 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등록 대수는 63만3375대로 2010년에 비해 11만4898대(22.2%) 늘었다. 이 가운데 승용차는 51만8440대로 같은 기간 11만3884대 늘어 증가분의 99.1%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승용차의 수송 분담률은 2010년 31.7%에서 지난해 40.7%로 9% 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시내버스는 38.0%에서 34.7%로 하락했고, 도시철도 1호선은 2.5%에서 3.5%로 오르는 데 그쳤다.

승용차 증가는 도로의 신규 개설 및 정비·확장을 위한 예산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광주시가 최근 3년간 도로 개설에 투입한 예산은 2079억여 원으로 매년 700억 원 안팎에 달한다. 매연과 미세먼지 등 대기 환경도 날로 악화하

고 교통 정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막대하다.

여기에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둘러싼 논란이 10여 년 이상 반복되면서 대중교통에 대한 신규 투자가 사실상 끊긴 것이 주요 원인이 됐다. 도시철도 1호선은 인구 밀집 지역과 중·고·대학 등이 노선에서 빠져 한계를 안고 있다. 이에 광주시는 지난해 ‘100인 시민 위원회’에서 2호선 재추진을 결정해 정부와 협의를 마치고 내년 상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 경제성과 수요 등을 들어 다시 반론을 제기하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쟁으로 흐를 우려가 높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은 수많은 협의를 거친 만큼 이제는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도시 교통 혁신의 계기로 삼는 게 맞다.

광주시 또한 도시철도와 시내버스, 마을버스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공공교통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5·18 왜곡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해야

전두환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통해 5·18항쟁 기간 동안 계엄군의 집단 발포를 자위권 행사라고 주장하는 등 보수 세력의 5·18 왜곡이 여전한 가운데, 국민 상당수가 5·18의 가치에 대한 훼손이 심각한 실정이며 5·18 비방·왜곡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지난 4월 여론조사 전문기관 현대리서치에 의뢰해 만 19세 이상 국민 1000명과 5·18 기념사업 참여자 1008명 등 총 2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5·18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 중 77.1%가 ‘5·18의 의미와 가치 훼손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특히 5·18에 대한 비방·왜곡을 막기 위해서는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78.4%가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5·18항쟁이 이바지한 가치를 점수로 매기는 문항에

는 한국 민주화(79.4점), 한국 인권 신장(73.5점), 아시아 국가들 민주화(58.5점) 등의 순으로 평가됐다.

이와 함께 ‘학살 책임자 처벌이 잘 이뤄졌는가’를 묻는 질문에는 72.7%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으며, 56.5%는 ‘5·18 진상 규명이 잘 이뤄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또한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비교적 인지도가 높은 응답자 군은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지역, 연령별로는 40대, 성별로는 남성, 직업별로는 블루칼라 등이었다.

5·18기념재단과 광주시는 5·18에 대한 국민의 인식·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호남 이외 지역에서는 인지도가 낮고, 30대 이하 젊은층과 고소득 보수층의 인식도 낮은 점을 고려해 향후 기념사업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특히 5·18 특별법 개정 시 5·18의 비방·왜곡 행위에 대해 처벌을 규정할 수 있도록 국회에 요구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를 성공한 사람도 드물다.

지역 추천 역시 이처럼 성과를 내는 경우가 드물었기에 결국 시험이라는 경쟁을 통해 인재를 찾았다. 이후 사람들은 시험이 비교적 공정하다고 믿게 됐다. 최근 학부제를 대상으로 한 대입전형 설문조사에서 90% 이상이 가장 공정한 대입 전형으로 수능을 꼽았다. 반면, 80% 이상이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해선 불공정하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수능 전형 비율은 갈수록 낮아져 이번 입시에

서는 겨우 26%다. 이 상하게도 정부나 대학은 입시 제도의 개선에는 뒷전이다.

오늘 수능 시험이 일제히 치러진다. 포항 지진으로 일주일 연기되는 우여곡절을 거쳐 수험생들은 인생의 중요한 시험대 하나를 또 통과한다. 그들이 결과에 상관없이 자신의 능력을 믿고, 하나의 과문을 지나 또 다른 언덕에 힘차게 오르기를 바란다. 그 사이 어른들은 누구나 노력한 만큼 과실을 얻을 수 있는 제도와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최선을 다해 시험을 본 수험생의 어깨를 마냥 다독이기에선 지금의 입시 체제가 너무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윤현석 정치부 부장 chadold@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